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10, No. 1, pp.25-34, January 31, 2024. pISSN 2384-0358, eISSN 2384-0366

http://dx.doi.org/10.17703/JCCT.2024.10.1.25

JCCT 2024-1-4

제3차 진로 교육 5개년 기본 계획(2023-2027)의미 분석

Analysis of the Meaning of the 3rd Career Education 5-Year Basic Plan (2023-2027)

윤옥한*

Yoon Ok Han*

요 약 이 연구의 목적은 제3차 진로 교육 5개년 기본계획(2023-2027)의 의미를 분석하여 진로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제3차 진로 교육 5개년 기본계획(2023-2027)의 의미는 첫째, 제1차 진로 교육 종합계획(2010년~2013년)과 제2차 진로 교육 5개년 기본계획(2016년~2020년)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여 제3차 진로 교육 5개년 기본계획(2023년~2027년)에 반영하였다는 것이 가장 큰 의미이다. 둘째,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진로 교육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셋째, 진로 교육의 범위가 늘어 났을 뿐만 아니라 심화 확대 된 것이 특징이다. 이를 바탕으로 진로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면 첫째, 진로 교육은 평생을 걸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급격한 사회 환경 변화에 민감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부 기관들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진로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산업, 노동, 교육 등 다양한 정부 기관이 전체적인 관점에서 진로 교육 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주요어 : 진로 교육, 진로 교육법, 진로 교육 정책, 진로지도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direction of career education by analyzing the meaning of the 3rd Five-Year Basic Plan for Career Education (2023-2027). The meaning of the 3rd Five-Year Basic Plan for Career Education (2023-2027) is: First, the 1st Comprehensive Career Education Plan (2010-2013) and the 2nd Five-Year Basic Plan for Career Education (2016-2020) It is most meaningful that the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of the program were analyzed and reflected in the 3rd 5-year basic plan for career education (2023-2027). Second, the career education presented in the 2022 revised curriculum is faithfully reflected. Third, the range of career education has not only increased, but also has been expanded in depth. Based on this, the direction of career education is presented. First, career education needs to be carried out throughout life. Second, it is necessary to respond sensitively to rapid social environment changes. Third, career education needs to be conducted in an organic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 agencies. Career education policies need to be established and implemented from a holistic perspective of various government agencies such as industry, labor, and education.

Key words : Career Education, Career Education Law, Career Education Policy, Career Guidance.

Ⅰ. 서 론

2015년 6월 22일 「진로 교육법」이 제정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같은 해 12월 23일에 시행되면서 진로 교육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진로 교육을 학교 현장에서 제도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진로 교육 변화에 큰 영향을 주었다. 진로 교육의 발전을 보면 1980년대 말까지를 태동기, 1990년대 초반

*정회원, 국민대학교 교육학과 부교수(제1 저자)
접수일: 2023년 10월 5일, 수정완료일: 2023년 10월 20일
게재확정일: 2023년 11월 5일

Received: October 5, 2023 / Revised: October 20, 2023
Accepted: November 5, 2023
*CorrespondingAuthor:okaiyoon@kookmin.ac.kr
Dept. of Education, Kook min University, Korea:

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를 발전기, 2010년 전후부터 「진로 교육법」이 마련되기까지를 혁신기로 나눌 수 있다[1]. 그러나 아직도 진로 교육이 학교 교육의 본질적 변화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더 채워지고 보완되어야 할 과제들이 많다. 급격한 과학기술의 발달과 평균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100세 평생학습 시대에 살고 있다. 급속한 기술 발전 예를 들면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확장 가상 세계, Chat GPT 등에 따른 새로운 직업 세계를 이해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진로 개발역량을 강화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산업사회에서는 하나의 직업으로 정년을 마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퇴직 전에도 퇴직 후에도 두세 번의 전직을 하고, 살아야 하는 시대이다.

과학기술 시대는 현대 사회에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시대를 의미한다. 이 시대에서는 과학과 기술의 발전으로 우리의 생활과 사회 구조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와 숙련된 기술 능력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 따라서 과학기술 시대에 진로 교육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상당히 중요하게 되었다. 첫째, 과학과 기술은 지식과 혁신을 촉진시키는 주요한 요소이다. 과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한 기술의 발전은 산업, 의료, 통신,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진보를 이끌고 혁신을 창출한다. 따라서 과학기술 시대에서는 이러한 분야들에서 뛰어난 전문가들의 필요성이 높아진다. 둘째, 국가나 기업의 경제적 경쟁력은 과학기술의 수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선진화된 과학기술을 보유한 국가나 기업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기존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도 과학기술 분야에 투자하고 인재 양성에 주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과학기술은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환경 문제, 에너지 공급, 질병 치료 등에 관한 연구와 기술적 발전은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분야에서 능력 있는 인재들이 필요하다. 넷째, 과학기술의 발전은 새로운 직업과 산업을 탄생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 로봇공학, 빅데이터 분석가 등과 같은 직업들이 최근에 등장하였고, 앞으로 더 다양한 직업들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직업들은 기존의 직업과는 다른 기술과 지식을 요구하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교육과 진로 지도가 필요하다. 다섯째, 과학기술은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에도 크게 이바지한다. 의료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질병 예방과 치료가 더욱 향상되고, 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 더 많은 정보와 지식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기술들은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주며, 이를 위한 연구와 개발에는 높은 수준의 전문 지식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과학기술 시대에서는 진로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 학생들은 과학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추고, 현대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습득하고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학교와 교육 기관은 과학기술 분야에 관한 교육과 연구를 강화하여 미래를 주도할 수 있는 인재들을 양성하는 데 힘써야 한다.

그러므로 사회 및 교육 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국가 수준의 진로 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게 되었다. 진로 교육법」 제5조 제1항에 의거한 중장기 진로 교육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진로 교육법 제5조 제1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발달 단계 및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 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2]. 교육부에서 발표하는 진로 교육 대책으로 제1차 진로 교육 종합계획(2010년~2013년)은 (2010년 2월 26일) 발표되었고 제2차 진로 교육 5개년 기본계획(2016년~2020년)은 (2016년 4월) 발표되었다. 제3차 진로 교육 5개년 기본계획은(2023년~2027년) (2023년 4월) 발표되었다.

제1차 진로 교육 종합계획은 교육부, 보건복지부나 고용노동부가 합동으로 마련하여, 학교 진로 교육의 '진로 교육 목표와 성취 기준(2012)'을 명시하고, 중·고등학교에 '진로 진학 상담' 선택과목을 가르치는 진로 진학 상담 교사를 5,298개교(95.3%)에 배치하였다. 이는 진로 체험을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는 등 진로 교육의 저변을 넓히는 데 이바지하였다. 제2차 진로 교육 5개년 기본계획은 제1차 진로 교육 종합계획을 확장하여 초등에서 대학까지, 사회적 배려 대상자, 학부모를 포함하는 등 진로 교육에 대한 범위를 넓히고 내실화된 진로 체험, 진로 교육이 강화된 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정책과제를 부여함으로써 본격적인 진로 교육의 체계를 마련하였다[3]. 제3차 진로 교육 5개년 기본계획은 1차 진로 교육 종합계획과 2차 진로 교육 5개년 기본계획에서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이다. 이처럼 진로 교육에 대한 기반이 조성되었음에도 급격한 사

회환경변화로 진로 교육은 앞으로도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다. 특히 2025년에는 고교학점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중등학교에서 진로 교육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 그런 가운데 2023년 4월에 제3차 진로 교육 5개년 기본계획(2023년~2027년)이 발표되었다.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교육부에서는 2021년 11월 24일에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및 주요 사항(시안)을 발표하였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비전은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인간상, 핵심역량, 교육 목표의 큰 틀을 바탕으로,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소양 및 역량을 반영하여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진로 교육과정을 보면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 편성 운영을 개선하고 있다. 고등학교에서는 고교학점제가 2025년에 전면적으로 실시된다. 이 시점의 교육부에서 제3차 진로 교육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따라서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실행되는 시점에서 교육부에서 발표한 제3차 진로 교육 기본계획을 분석해 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4].

진로교육과 관련된 연구는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4-16]. 그러나 교육부에서 발표하는 진로 교육 계획과 관련된 연구는 많지 않다. 제3차 진로 교육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 정도이다[17].

이 연구의 목적은 제3차 진로 교육 활성화 방안 5개년 계획의 의미를 분석하여 진로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II.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문헌 고찰 및 이론적인 분석을 통해 제3차 진로 교육 활성화 방안 5개년 계획의 의미를 분석하여 진로 교육의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기존의 연구와 교육부 보고서, 정책문서, 교육 관련 논문 등 다양한 문헌을 검토한다. 진로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학술 자료(국외: Education Resource, Science Direct, ERIC 등, 국내: RISS, KCI, DBPIA, KISS)를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 분석하였다. 진로 교육, 직업 교육 이란 단어를 통하여 저서 10권 논문 35편을 수집하였으며 본 논문에서 활용된 저서와 논문은 표 1과 같다.

표 1. 사용된 논문과 저서
Table 1. Papers and Books Used

구분		검색 수	사용 수
직업 교육 진로 교육	논문	25	18(72%)
	저서	10	5(50%)
진로 교육	논문	45	29(64%)
	저서	12	7(58%)

III. 제3차 진로 교육 5개년 기본계획(2023년~2027년) 의미 분석

진로 교육은 진로 교육법에 명시되어 있다. 진로 교육법 제2조 1항을 보면 다음과 같다. "진로 교육"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학생에게 자기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직업 세계를 이해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설계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하여 진로 수업, 진로 심리검사, 진로상담, 진로 정보 제공, 진로 체험, 취업 지원 등을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진로 교육법 제1조에서는 진로 교육의 목적을 명시하고 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학생에게 다양한 진로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변화하는 직업 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실현하여 국민의 행복한 삶과 경제 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모든 학생은 발달 단계 및 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진로 교육은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자신의 진로를 창의적으로 개발하고 지속해 발전시킬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교육활동이다. 이러한 역량을 바탕으로 바른 품성과 높은 사회적 책무성을 다하는 성숙한 성인으로서의 행복한 삶을 준비하는 것이 학교 진로 교육의 목표이다. 이러한 진로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부에서 시대 환경에 맞게 진로 교육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1. 제1차 5개년 계획 (2010년) 성과와 한계

진로 교육 종합계획(2010~2013)(2010. 2. 26.)은 교과부, 노동부, 복지부 공동으로 범부처 차원의 제1차 진로 교육 중·장기 계획에 해당한다. 정책과제는 크게 3대 정책 영역이다. 첫째, 체험 중심의 학교 진로 교육 활성화, 둘째, 균등한 진로 교육 서비스 제공, 셋째, 진로 교

육 지원체계 선진화'로 10개의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첫째, 체험 중심 학교 진로 교육 활성화의 경우 성과와 한계는 다음과 같다. ①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을 활용한 직업 체험, '찾아가는 진로 체험 버스', '원격영상 진로 조언' 등을 통해 다양한 진로 체험 기회를 제공하였다. 중등학교에서는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2013년에 시범 운영하게 되었고 2016년에 전면 시행되어 진로 탐색 활동의 일환으로 진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게 됨으로써 다양한 진로 체험처를 확보하게 하였다. ②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운영, 진로 체험 지원 전산망 '꿈길' 운영, 진로 체험을 위한 지침과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지침 및 동영상을 제작하여 학교에 보급하는 등 진로 체험 인프라를 구축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이러한 성과도 있었지만, 체험 중심 학교 진로 교육 활성화로 인한 한계는 자유학기제 도입 이후 진로 체험 행사의 양적 확대에 치중하여 프로그램의 질에 대한 관리가 부족하였고, 학생 맞춤형 진로 체험을 위해 다양한 진로 체험 행사 개발이 필요하게 되었다. ③ 기존의 '직업 세계체험주간'을 진로 교육에 적합한 이름('진로의 달', '진로 체험 주간', '진로 체험의 날' 등)으로 변경하여 다양한 형태로 확대 운영하였으나 자유학기제 도입 등으로 인한 교육 환경의 변화로 인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였다. ④진로 교육 우수사례 보급 및 우수학교 인증을 위하여 국가 수준의 진로 교육 목표와 성취기준('12.4)을 마련하여 학교급별 진로 교육 기준을 구축하였다. 그러나 진로 교육의 우수사례를 보급 확산하는 방안 및 홍보 부족하였다. ⑤진로 교육 교과서 및 지침 개발 보급하였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진로와 직업」 수업시수 확보 및 확대 추진하였다. 학교급별 진로 교육의 지침과 교과 통합형 진로 교육의 지침 개발 및 보급 추진하였다. 그러나 학교급별 맞춤형 진로 교육 콘텐츠 및 프로그램 부족하였다[17].

둘째, 균등한 진로 교육 서비스 제공의 성과와 한계는 다음과 같다. ①취약 위기 청소년 진로 교육 강화이다. 자립 지원이나 진로 교육을 위한 상설 두드림 존을 확대 시행하였다. 농산어촌 전원학교 중 진로 교육 프로그램 확대 및 지원 연계하였다. 취약·위기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정책 지원에도 불구하고, 대상자의 실제 이용률은 저조하다[18]. ②다문화 탈북 청소년 진로 교육 지원 확대하였다. 다문화가정 청소년 진로 전담관 제도 운용, 탈북 청소년의 진학·진로 교육 및 취업 연계 교육을 강화하였다. 전체 출생아 중 다문화 출생아의 구성비가 커짐에 따라 보다 세밀한 교육 지원이 아쉬웠다. ③학업 중단 청소년 진로 교육 자립 지원체계를 구축하였다. 학업 중단 청소년에 대한 자립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였다.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별도의 법안이 제정되고, 학업 중단 청소년에 관한 관심과 지원이 증가하였으나 학업을 중단하는 청소년의 수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17].

셋째, 진로 교육 지원체계 선진화의 성과와 한계는 다음과 같다. ①진로 정보의 체계적인 제공 관리이다.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진로 정보망 커리어넷 서버 확충 및 시스템 고도화 구축이다. 2011년에는 모든 학생의 검사 및 상담 필수화, 상담전문가 양성 및 재교육을 강화 하였다. 그러나 학교에서 집단(학년, 학급)으로 실시하는 진로 검사, 진로 체험 등으로 학생 개인별 진로 탐색 및 설계 지원이 미흡하였다. ②진로 교육 관련 법령 및 조직 정비이다. 진로 교육법」(2015. 12. 23. 시행)을 제정하여 진로 교육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제1장 총칙, 제2장 초·중등학교의 진로 교육, 제3장 대학의 진로 교육, 제4장 진로 교육 지원 등 총 4장 23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모든 학생을 위한 진로 교육의 기본방향을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와 역할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현재 「진로 교육법」의 생애 진로 개발 지원을 위한 법적 기준 및 학교 진로 교육 의무 사항은 없는 것이 한계이다[19]. ③진로 교육 전문 인력 양성 연수체계를 개편하였다. 현직 교원을 선발하여 '진로 진학 상담 교사' 부전공 자격연수(570시간)를 실시하여 2011년부터 전국 중·고교 1교당 1명씩 배치하기 시작하였다. 「진로 교육법」 제정 이전에는 '진로 진학 상담 교사'라는 이름으로 중학교와 고등학교에만 배치되었으나, 「진로 교육법」 제정 이후 '진로 전담 교사'라는 이름으로 초·중·고등학교에 배치되었다[20]. 진로 진학 상담 교사의 부전공 자격연수의 질 관리 및 지속적인 전문성과 역량 제고를 위한 재교육 기회가 필요하다[17].

2. 2차 진로 교육 5개년 계획 (2010년) 성과와 한계

「제2차 진로 교육 5개년 기본계획(2016~2020)」(2016. 4. 5.)은 2016년에 전면 시행되었다. 자유학기제의 안착과 확산을 위한 교육부의 제2차 진로 교육 5개

년 기본계획으로 정책과제는 크게 4대 정책 영역과 세부 과제 6개가 있다. 첫째, 초·중등학교 진로 교육 역량 강화, 둘째, 진로 교육 대상 확대, 셋째, 진로 체험 활성화, 넷째, 진로 교육 인프라 확충이다.

첫째, 초·중등학교 진로 교육 역량 강화의 성과와 한계는 다음과 같다. ①진로 교육이 강화된 학교 교육과정 운영이 정착되었다. 중등학교에서의 진로 교육은 「진로와 직업」 선택교과, 교과 연계 및 창제 중 진로 활동 유지 운영되고 있으며 「진로와 직업」 선택교과로 채택하는 비율은 중학교 80%, 고등학교 50% 수준으로 유지 운영되고 있다[21, 22]. 진로 교육 집중 학년·학기제 연구 시범학교 운영지원, 자유학기 연계 진로 교육 집중 학년·학기제 운영 매뉴얼, 고등학교 교과 연계 진로 교육 교수·학습 지침, 특성화고 학생의 선취업 후 진학 설계 지원을 위한 교과 연계 진로 교육 교수·학습 지침, 창의적 체험활동 기반의 진로 교육 프로그램 개발하였다[23]. 학교 진로 교육과정의 전반적인 운영 확대가 부진하였고 「진로와 직업」은 학교급별 특성을 반영한 교수·학습 방법과 사회 및 교육 환경 여건에 맞춘 내용 구성이 필요하게 되었다[17]. ②교원 및 지원인력의 진로 교육 전문성을 높였다. 전담 인력 확충을 위한 초·중등학교 진로 전담 교사 배치는 양적으로 확대되었다. 2019년 4월 1일 기준 중학교 배치율은 91.4%(2,796명), 일반고 94.5%(1,746명), 실업계고 93.4%(503명)로, 전체 중등학교 수 대비 배치율은 92.6%(5,045명)이다[24]. 초등학교는 진로 전담 교사의 역할과 보직 여부의 차이가 크고, 전문성 축적이 미흡하고 일부 시도의 중등학교 진로 전담 교사 배치율은 여전히 저조하며, 향후 개선이 불투명한 실정이다. '진로 전담 교사 부전공 자격연수'와 '진로 진학 상담 교육대학원'의 두 가지 양성체계의 내실화 및 체계적 운영이 필요하다[17].

둘째, 진로 교육 대상 확대의 성과와 한계는 다음과 같다. ①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진로 교육 지원을 강화하였다. 특수 교육 대상 학생 배치 유형별(특수학교·일반 학교), 학교급별(초·중·고) 특성을 생각한 진로 정보 제공, 진로 탐색 및 진로 체험 기회를 강화하였으며, 2018년에 「진로 교육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을 통해 특수학교에 '진로 진학 상담' 교원자격증을 가진 진로 전담 교사 배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소외계층의 진로 교육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지원하고 있다. 진로 교육의 사업수혜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진로 체험 가용 예산 부족으로 지역 간 진로 체험 격차 확대되고 있다[17].

셋째, 진로 체험 활성화의 성과와 한계는 다음과 같다. ①양질의 진로 체험처 확보 및 내실화이다. 진로 체험 우수사례 발굴·확산, 각종 평가지표에 진로 체험 지원 반영, 민간기관과의 협력 강화, 진로 체험 매칭 지원강화 등을 추진하여 사회 전반에 진로 체험처 제공 분위기를 확산하였다.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지원을 통해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안정성 및 전문성 강화를 추진하고 '교육 기부 진로 체험기관 인증제'를 도입·운영하여 진로 체험처 관리를 강화하였다. 한계는 진로체험지원센터 및 체험처의 진로 체험 진행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진로 체험 제공자의 신원 확인 근거가 미비 되었다. ②진로 체험 행사 확대이다. 창업 체험교육, VR 등을 이용한 가상 직업 체험 행사 개발·보급, 신직업 체험 행사 개발·보급 등을 통해 다양한 영역의 진로 체험 행사를 개발 및 확산하였다. 그러나 진로체험지원센터가 관할 체험처의 진로 체험 행사 수준별 정비, 원격 진료 체험 행사 개발·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나, 센터 간의 역량 차이로 인해 현장의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14].

넷째, 진로 교육 인프라 확충의 성과와 한계는 다음과 같다. ① 진로 교육 지원체계 구축이다. 진로 교육 지원 전담 기관으로 국가 진로 교육센터 지정 및 운영, 지역 진로 교육센터 지정 및 운영하고 있다. 「진로 교육법」 제16조와 시도교육청의 진로 교육 조례에 근거하여, 17개 시도에 지역 진로 교육센터를 지정 및 운영하고 있다. 중앙과 지역, 전문기관이나 관계기관 등 다양한 기관들의 협력을 끌어내는 허브 역할 및 진로 교육 정책 선도기관으로의 역할 정립이 요구되나 「진로 교육법」에 명시된 업무 내용에 협력과 연계와 관련한 업무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못하고 있다[25]. ② 진로 정보망 개편 및 학부모 진로 교육 강화이다. 2012년 커리어넷 전면 고도화 및 모바일 앱(검사, 상담, 미래의 직업 세계) 서비스를 시행하고, 이후 e 진로 채널 앱(2013), 직업흥미검사(H형) 개시 및 진로와 직업 스마트북 서비스 개통(2014), 학부모 대상의 맘에 쇼 진로 앱 서비스 개시 및 경험 플래너 서비스 개시(2015), 커리어넷 모바일 앱 3종(커리어넷, 커리어넷 ebook, 맘에 쏙 진로(2018년)) 통합, 초등학생을 위한 진로 정보망 '주

니어 커리어넷' 서비스 개시(2020년), 온라인 진로상담 서비스 개시(2021)하였다[22]. 학생들의 진로 탐색을 위한 다양한 진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학생 개개인의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적 지원은 부족하다[26, 27].

1·2차 진로 교육 기본계획의 성과 및 한계를 2022년 현재 시점에서 다시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국가 수준의 진로 교육 목표와 성취기준을 마련하여 학교급별 특성에 맞게 진로 교육 교육과정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진로 교육 집중 학년·학기제를 지속해 운영하고, 「진로와 직업」 선택교과를 확대하며, 다양한 대상별 진로 교육 콘텐츠를 구축하여 보급 확산하고, 다양한 진로 교육 정보를 서비스하는 커리어넷을 고도화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하였다. 진로 교육의 활성화를 통해 학생의 진로 준비 및 설계 역량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 사업들을 운영하였으나 학생 개개인의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17].

3. 제3차 진로 교육 5개년 기본계획(2023년~2027년) 의미 분석

제3차 진로 교육 5개년 기본계획(2023년~2027년)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3차 진로 교육 5개년 기본계획(2023년~2027년) 의미는 제1차 진로 교육 종합계획(2010년~2013년)은 (2010년 2월 26일)과 제2차 진로 교육 5개년 기본계획(2016년~2020년)은 (2016년 4월)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여 제3차 진로 교육 5개년 기본계획(2023년~2027년)에 반영하였다는 것이 가장 큰 의미이다.

둘째,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진로 교육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 것의 의미가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중학교 자유룝기 운영 시기 및 방법 등을 지역 학교 상황에 맞게 운영하고 창의적 체험활동과의 중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선하였다. 현행 자유학년제도를 자유학기제로 일원화하였다. 중학교 1학년 1~2학기 중 한 학기만 자유학기제로 운영하게 하였으며 진로 연계 학기로 3학년 2학기에 실시한다. 진로 연계 학기로 3학년 2학기에 운영하는 방법은 교과별로 진로 단원을 신설하여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진로 활동을 하게 하였다. 또한 학교 자율시간을 활용하여 진로 관련 선택과목을 운영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진로 교육을 학교급 전환 시기의 진로 연계 교육을 강화한 것이다. 상급 학교로 진학하기 전인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중 일부 기간을 활용하여 학교급별로 연계 및 진로 교육을 강화하는 진로 연계 학기를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면 입학 초기인 초등학교 1학년 1학기에 학교 이해와 정서 지원(학교생활 적용) 및 기초학습 이해를 시행하고, 초등학교 6학년 2학기에는 중학교 이해와 정서 지원, 교과별 학습 방법, 학습 습관, 학업 자존감 형성을 교육한다. 중학교의 경우 중학교 1학년 중 한 학기는 자유학기를 실시하며 중학교 3학년 2학기에는 고교학점제와 고등학교 생활 이해, 진로 이수 경로 등을 교육한다. 고등학교의 경우 1학년 1학기는 진로 집중 학기가 실시되며 고등학교 3학년 2학기에는 수능 이후 대학 생활 이해 및 대학 선이수 과목, 사회진출 관련 등을 교육한다[28, 29].

고등학교는 고교학점제 기반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운영된다. 진로·적성에 맞게 배울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과정 구현이 구현된다. 학생들이 진로·적성에 맞게 배워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과 미래 성장 잠재력을 키울 수 있도록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및 안착 지원이 시행된다. 수업량 적정화를 위해 1학점 수업량을 50분 기준 17(16+1)회에서 16회로 전환하고, 여분의 수업량을 활용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자율적으로 운영된다. 교과 재구조화로 고교 단계 공통소양 함양을 위한 공통 과목 유지, 일반 선택과목 적정화, 다양한 진로 선택과목 재구조화 및 융합 선택과목이 신설된다.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이행에 필요한 직업 생활의 공통 기본소양 함양을 위해 전문 공통 과목이 세분된다. 이처럼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나타난 진로 교육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초중등학교 진로 교육 내실화를 제3차 진로 교육 5개년 계획에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예를 들면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비한 연구학교의 운영과 같은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28, 29].

셋째, 진로 교육의 범위가 늘어 났을 뿐만 아니라 심화 확대 된 것이 특징이다. 그 예는 표 2, 표 3, 표 4 차별 진로 교육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에서 볼 수 있다[26].

표 2. 1차 진로 교육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
Table 2. Detailed implementation plan for each 1st career education task

구분	1차 5개년 계획 (2010년~2013년)
과제별 세부 추진 계획	1. 체험 중심 학교 진로 교육 활성화 1-1 직업 체험 행사 확대 제공 1-2 진로의 달 운영 및 확대 1-3 진로 교육 우수사례 보급 및 우수학교 인증 1-4 진로 교육 교과서 및 지침 개발 보급 2. 균등한 진로 교육 서비스 제공 2-1 취약 위기 청소년 진로 교육 강화 2-2 다문화 탈북 청소년 진로 교육 지원 확대 2-3 학업 중단 청소년 진로 교육 자립 지원체계 구축 3. 진로 교육 지원체계 선진화 3-1 진로 정보의 체계적인 제공 및 관리 3-2 진로 교육 관련 법령 및 조직 정비 3-3 진로 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연수체계 개편

표 3. 2차 진로 교육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
Table 3. Detailed implementation plan for each 2nd career education task

구분	2차 5개년 계획 (2016년~2020년)
과제별 세부 추진 계획	1. 초중등학교 진로 교육 역량 강화 1-1 진로 교육이 강화된 학교 교육과정 운영 정착 1-2 교원 및 지원인력의 진로 교육 전문성 제고 2. 진로 교육 대상 확대 2-1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진로 교육 지원강화 3. 진로 체험 활성화 3-1 양질의 진로 체험처 확보 및 내실화 3-2 진로 체험 행사 확대 4. 진로 교육 인프라 확충 4-1 진로 교육 지원체계 구축 4-2 진로 정보망 개편 및 학부모 진로 교육 강화

표 4. 3차 진로 교육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
Table 4. Detailed implementation plan for each 3rd career education task

구분	3차 5개년 계획 (2023년~2027년)
과제별 세부 추진 계획	1. 초중등학교 진로 교육 내실화 1-1 진로 교육 교육과정 편성 제고 1-2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비한 연구학교 운영 1-3 학교 진로 교육 여건 조성 1-4 교원의 진로 교육 역량 강화 1-5 학생 개인 맞춤형 진로상담 활성화 2. 미래형 교육과정 대비 진로 교육 혁신 지원 2-1 신산업 중심의 지역사회 연계 진로 체험 교육과정 모델 개발 2-2 신산업 분야 시도 특색 진로 체험 행사 운영 3.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한 진로 체험 생태계 조성 3-1 진로체험지원센터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3-2 시대 변화 등을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3-3 지역사회와의 진로 체험 협력체계 강화 3-4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안정적 운영지원 3-5 진로 교육 업무협약 기관 효율적 관리 도모 4. 초 중등 창업 체험교육 확대 4-1 창업가정신 함양 교육 수업·동아리 활동 지원 4-2 지역사회 창업가정신 함양 교육 생태계 조성 지원 4-3 원격영상 진로 조언을 통한 온라인 진로 체험 기회 제공 5. 진로 교육 사각지대 해소 5-1 다문화 등 소외계층 대상 진로 교육 지원 5-2 지역 간 진로 체험 격차 해소 지원 5-3 사각지대 없는 인증기관 발굴 및 운영 6. 진로 교육 인프라 확대 6-1 커리어넷 운영 활성화 6-2 꿈길 사용 편의성 제고 6-3부처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

세부 추진과제를 보면 1차는 추진과제가 3개 세부 과제는 10개, 2차는 추진과제가 4개이고 세부 과제는 6개, 3차는 추진과제가 6개 세부 과제는 21개이다. 1차 때 보다 추진과제는 3개(100%)가 많아졌으며 세부 추진과제는 1차 때 보다 11개(100%)가 더 늘어났다. 이러한 추이로 볼 때 진로 교육의 범위가 늘어 났을 뿐만 아니라 심화 확대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1차 때는 주로 법령 제정 및 제도 정비와 같은 진로 교육 기반을 다졌다면, 2차 때는 진로 교육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진로 교육 인프라로 정비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다. 3차의 경우에는 1차와 2차를 기반으로 이제는 학교급별로 진로 교육을 내실화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22 개정된 교육과정과도 궤를 같이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고등학교 고교학점제도 시행에 따른 진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시대 흐름에 맞게 미래 교육과정 편성에 대비한 진로 교육으로 신산업 인재 양성, 디지털 인재 양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IV. 결론 및 제언

우리나라의 학교 진로 교육은 어느 정도 체계적인 운영 기반을 갖추었다. 학교 현장에서는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진로 연계 교육 도입,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등에 대비하여 학교 진로 교육 체제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서 제3차 진로 교육 5개년 계획이 발표되었다. 제3차 진로 교육 5개년 추진 방향은 개인 맞춤형 진로 교육을 통한 미래 인재 양성 및 지원이었다. 2023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학교 진로 교육의 큰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양적 및 질적으로

개선할 사항이 많다. 먼저 학교 진로 교육 인력 측면에서 진료 교사가 배치된 학교라 하더라도, 한 명의 진료 교사가 모든 학년의 학생을 담당하기 어렵다. 또한 학교 진로 교육의 물리적 및 내용적 인프라도 부족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금 진로 교육이 개선되어야 할 점은 첫째, 학교 진로 교육과정이 체계화되고, 진로 수업이 내실화되어야 한다. 둘째, 진로 교사를 대폭 확대 배치하여 현실화할 필요가 있으며, 셋째, 모든 교사나 예비 교사의 진로 교육 기초역량 함양이 필요하다. 넷째, Chat GPT 등장 시대를 대비하여 학교 진로 교육을 통한 창업가정신 함양과 같은 새로운 진로 직업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다. 즉 다양한 진로 교육 관련 데이터를 축적·활용하고 AI,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교육이 이뤄질 수 있는 미래 진로 교육 체제 구축 방향이 필요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제3차 진로 교육 5개년 기본계획(2023-2027)의 의미를 분석하여 진로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제3차 진로 교육 5개년 기본계획(2023-2027)의 의미는 첫째, 제1차 진로 교육 종합계획(2010년~2013년)과 제2차 진로 교육 5개년 기본계획(2016년~2020년)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여 제3차 진로 교육 5개년 기본계획(2023년~2027년)에 반영하였다는 것이 가장 큰 의미이다. 둘째,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진로 교육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셋째, 진로 교육의 범위가 늘어 났을 뿐만 아니라 심화 확대 된 것이 특징이다.

이를 바탕으로 진로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면 첫째, 진로 교육은 평생을 걸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급격한 사회 환경 변화에 민감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부 기관들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진로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산업, 노동, 교육 등 다양한 정부 기관이 전체적인 관점에서 진로 교육 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진로 교육 5개년 기본계획은 「진로 교육법」 제정과 더불어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학생들이 앞으로 헤쳐 나가야 할 변화하는 사회에 대한 자생력을 키우고 자기 소질과 적성에 맞는 미래를 설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학교에서 진로 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학생, 학부모 등 학생을 둘러싸고 있는 기관들이 힘을 합쳐 창의인재 육성을 위해 노력해야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다. 특히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 진로 교육의 내용 및 방법과 개선이 필요하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개인 맞춤형 학생 자기 주도적 진로·학업 설계 강조하고 있으며,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디지털 전환,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진로 교육 간 역할 구분 및 연계 내실화가 필요하다. 고등학교에서는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학생의 주도적 진로·학습 설계 역량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학생의 진로 목표 설정 시기가 고 1학년 상반기로 빨라지고 있으며, 고교학점제 수강 신청을 위해 고교생의 자기 주도적인 진로 설계, 학습설계(고교 과목 선택 등)에 대한 역량이 필요하다. 또한 평생 진로 개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대학이나 성인 진로 개발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 주로 고용노동부 주관 취업 중심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앞으로는 대학이나 성인 진로 개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점에 제3차 진로 교육 5개년 계획이 발표되었다는 것과 그 내용을 살펴본 결과 상당히 의미 있는 진로 교육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References

[1] W. S. Seo, “Achievements and Challenges of the Career Teacher System,” The 55th Fall *Conference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Career Education*, Vol. 2022, No. 11, pp. 1-65, 2022.

[2] https://webzine-serii.re.kr

[3] S. T. Moon, “5-year basic plan for career education and future tasks,” The HRD Review, 2016.

[4] Ministry of Education, 2022 Revision Curriculum Summary Main Points (Plan). Sejong: Korea, 2021.11.24. p. 1-47. 2021.

[5] M. S. Kim, I, D, Choi, “A Study on the Level of Career Decision for Middle School Students : Focusing on Schools Operating Educational Welfare Priority Support Projects,” *Korean Journal of Care Management*, Vol. 39, pp. 91-119, 2021. http://dx.doi.org/10.22589/kaocm.2021.39.91.

[6] J. Moon, K. H. So, “An Analysis of Implementation of Career Education in Middle School: Focusing on Excellent Schools in Curriculum,”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 29, No. 4, pp. 135-155, 2016. UCI G704-001285.2016.29.4.003

[7] S. J. Park, D. J. Cho, "An Analysis of Middle School 「Career and Vacation」 Textbooks based on the Perspective of Lifelong Education, *Teachers and Education.* Vol, 33, pp. 67-88. 2014.
UCI I410-ECN-0102-2016-370-000656088

[8] S. H. Song, H. G. Ryu, Y. S. Lee, "An Analysis of the Labor Market Performance of Graduates of Vocational High School : Focusing on Career Guidance and Employment Support," Quarterly Journal of Labor Policy, Vol. 21, No. 3, pp. 115-142, 2021. http://doi.org/10.22914/jlp.2021.21.3.005.

[9] H. K. Lee, D. H. Cho, "Analysis of the Educational Needs of Secondary Career Teachers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ra,"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Vol. .37, No. 5, pp.55-78, 2018

[10] S. M. Lee, "Development of virtual reality contents for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on Semiconductor production line Clean Room Tour," *The journal of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9, No.1, pp. 191-197, 2023.

[11] J. G. Park,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of the Career Teacher Training Course," *The 55th Fall Conference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Career Education,* Vol. 2022, No. 11, pp. 108-120, 2022.

[12] Y. K. Eo,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of Career Teacher Training Course - K Education Graduate School Case," *The 55th Fall Conference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Career Education,* Vol. 2022, No. 11, pp. 95-107, 2022.

[13] O. H. Yoon, "Analysis of Secondary School Teachers' Perception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for Career Guidance," *Asia-pacific Journal of Convergent Research Interchange (APJCRI),* Vol. 8, No. 3, pp. 213-225, 2022. artiId: ART002825139.

[14] C. Y. Jung, "National Career Education Policy in Korea," *The 53rd Autumn Conference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Career Education*, 15-30. 2021.

[15] I. D. Jeong, "Activation plan of career counseling guidance according to education reform,"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 6, No. 0, pp. 95-110, 1996.

[16] S. M. Jeong,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Regional Career Educational Conditions andMiddle School Students' Career Development Competencies,"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Vol. 24, No.1, pp. 31-59, 2021.

[17] Y, K. Jeong, J. E. Jeong, M. K. Kim, N. S. Park, S. R. Hwang, N. R. Kim, H. J Bang, C. R. Kwak & J. R. Shin (2023), "Policy Study for Establishing the 3rd Five-Year Basic Plan for Career Education," Publication Registration No. 11-1342000 -000900-01. Ministry of Education, Korea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Institute. 2023.

[18] S. G. Hwang, D. M. Kim, T. H. Kang, J. W. Son, H. Y. Kim & J. H. Kim, "2016 National Youth Crisis Survey," korea Youth Counseling Welfare Center. 2016.

[19] J. Y. Lee, H. W. Kwon, J. S. Ahn & D. H. Lee, "Policy directions for establishing a national career guidance safety net and Assignment Seminar Materials Book. Research Society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2022.

[20] H. H. Yun, "Current status of participation in career education by local governments and tasks for vitalization," Sejong: Korea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Institute. 2018.

[21] H. J. Jang, M. K. Kim, J. Y. Ryu, M. A. Ryu & S. R. Yun, "Career education center operation project in 2015 3-7. school Career education survey," Ministry of Education · Korea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Institute. 2015

[22] M. G. Kim, N. S. Park, N. R. Kim, H. J. Bang, Y. J. Ahn & H. E. Kwon,"Support for the operation of the National Career Education Center in 2021 1. Survey on current status of elementary and secondary career education," Ministry of Education ·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2021.

[23] Y. M. Son, H. J. Jang & N. R. Kim, "Career education center operation project in 2017 (Ⅰ)," Korea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Institute. 2018.

[24] J. Y. Lee, H. J. Bang & J. S. Lee, "Secondary career counseling minor qualification qualification curriculum (draft) study," Ministry of Education. Ulsan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 Korea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Institute. 2020.

[25] Y. J. Seo · S. W. Kim, C. S. Park & Y. G. Jeong, "Current status and tasks of career education in the career education law system," KRIVET, 2016.

[26] Y. K. Jung, "A study on the school career curriculum in response to the revision of the national curriculum," Korea Research Institute of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2021.
[27] W. S. Seo, "Achievements and Challenges of the Career Teacher System," *The 55th Fall Conference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Career Education,* Vol. 2022, No. 11, pp. 1-65, 2022.
[28]Ministry of Education, "Announcement of the 3rd Career Education Revitalization Plan (2023-2027)-Providing lifelong career education services from elementary school students to adults," Ministry of Education Press Release, 2023.4.28. Sejong: Ministry of Education. 2023.
[29]Ministry of Education, "2nd Five-Year Basic Plan for Career Education (Draft) for Establishing and Spreading the Free Semester System (2016-2020)," Ministry of Education Press Release, 2016.4.5. Sejong: Ministry of Education. 2016.